

# 여성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 공천자·낙천자 간의 경쟁력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Candidate Selection Factors in the Process of Party  
Nomination for the Election of a Local Councilor  
: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Competitiveness Among Women Candidates

조 양 민\* · 남 재 겐\*\*

Jo, Yang Min · Nam, Jae Geol

### ■ 목 차 ■

- I. 서론
- II. 정당공천과 정치적 충원
- III. 측정도구 및 자료수집
- IV. 분석결과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보다는 여성 자신의 역량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엘리트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대리인이론, 신제도주의 이론을 통합한 관점에서 여성의 공천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당 공천 경험이 있는 전·현직 여성지방의원 17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공천자는 낙천자보다 연령이 낮고, 재산이 많으며 정당활동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 공천후보자의 연령, 재산, 정치경력, 의원경력, 도덕성, 성취욕구, 리더십, 정당기여도가 공천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여성의 정치참여는 신제도주의 이론뿐만 아니라 엘리트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대리인이론 등과 같이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도덕성과 리더십과 같은 심리적 역

\* 제1저자,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논문 접수일: 2017. 5. 4, 심사기간: 2017. 5. 4~2017. 6. 13, 게재확정일: 2017. 6. 13

량을 강화하고, 정당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주제어: 여성의 정치참여, 정당공천, 공천결정요인, 정치적 충원 이론

Most studies on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re approaching from an institutional point of view. However, in the view that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s determined by their own capacity, we tried to analyze women's nomination determinants from the viewpoint of integrating elitism theory, rational choice theory, agent theory, and new institutionalism theory.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178 former and current female local councilors who had party nomination experienc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andidate nominated by a party is younger than a failure in an nomination, has more wealth, and is more active in party activity. Second, age, wealth, political career, counselor's career, morality, achievement desire, leadership, and party contribution were found to be the determinants of nomination. These results confirm that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can be explained by various theories such as elite theory, rational choice theory, and agent theory as well as new institutionalism theory. In addition, it psychological capacity building such as morality and leadership, As well as to the extent that it is necessary to do so.

□ Keywords: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Party Nomination, Candidate Selection Factors, Political Recruitment Theory

## I. 서론

지방자치제가 부활해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재개된 이후 26년이 되었다.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최근 2014년의 선거까지 총 6번의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출발한 지방자치제는 다양한 시대적 요구에 조응하면서 변화와 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선거제도에 대해 비판이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적 충원의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방의회에서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이다. 그간 학계, 여성계를 중심으로 꾸준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일부 제도개혁

의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임계치인 30%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에 대한 당위론적이고 규범적인 논리는 간단명료하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절반의 정치적 대표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50% 할당제나 프랑스의 동수공천 및 남녀동반선출제는 이러한 ‘동수를 통한 평등(equity by parity)’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대표자가 될 동등한 권리’인 50%와 동수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시혜적인 차원의 배려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여성이거나 남성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반영한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김은주, 2014). 물론 한국의 인식수준은 이와 거리가 멀다.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 여성할당제와 여성추천보조금 등 정치관계법과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기에는 남성 중심적인 정치환경, 성별 분업적 인식 등으로 인하여 많은 제약이 따르고(안성호, 2015) 여전히 남성중심의 정치문화가 공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황아란, 2006).

지방의회에 충원된 정치인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학력이 높고 연령과 재산이 많으며 남성일수록 당선될 확률이 높다(김석우·임성학·전용주 2008; 이승철 2014). 그간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떤 후보를 공천해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정치적 충원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민주성, 대표성과 같은 가치를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정집단 혹은 특정계층으로 구성된 의회가 주민의 의견과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써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유보적인 견해가 많다(유재원, 2003).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기존의 연구는 선거제도 개선과 같은 법·제도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다. 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법·제도를 강화해야 여성들의 과소대표성을 해소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등 정당공천제를 향한 다양한 비판적 견해(이현우 2006; 임승빈 2006; 황아란 2006)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여성위원의 양적 증가는 2006년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도입된 정당공천제와 등록무효조항이 결합해 할당을 강제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이어 2010년 등록무효조항이 유지된 채로 지역구 여성할당제가 채택 된 것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주된 요인이었다. 사실상 여성할당제의 가장 강력한 형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황아란, 2011). 특히 기초단체장선거에 여성전략지역을 적용한다든지 중선거구제인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기호순위에서 여성을 우선 배려한다든지 하는 정당의 정책은 법 개정을 통해 강제할당의 형태로 도입된 할당제가 정당 내의 할당제로 규범의 확장을 보이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치러진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지방의회 여성의원비율은 광역의원의 경우 14.8%(지역구 58명, 비례대표 55명)로 113명 당선되었고 기초의원의 경우 25.3%(지역구 369명, 비례대표 363명)로 732명이 당선되어 총 3,951명의 당선자 중 여성이 21.6%인 854명에 이르렀다. 지방선거에서 여성

비례대표 당선자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더 많은 선거는 처음이었다.

첫 지방선거의 여성의원 당선자 비율이 0.9%였던 것을 감안해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원 비율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보면 세계 여러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여전히 낮은 수치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격차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에 따르면, 한국은 성격차지수(Global Gap Index)에서 전 세계 144개 조사대상국 중 116위로 2013년 순위보다 5단계 하락했고 특히 정치적 권한(Political Empowerment) 부문은 92위를 기록해 여전히 하위권에 있는 한국여성들의 정치적 현주소를 알 수 있다(세계경제포럼).

한편, 여성지방의원의 양적 증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질적 성장에 대한 논의를 수반하게 된다.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 어렵게 충원된 여성지방의원들이 자신의 경쟁력을 발굴·심화하여 그 정치적 경력을 지속하고 경력을 확충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심화,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김원홍·이현출, 2010). 일례로 부산시 한 자치구의 여성구청장은 구의원 재선을 거쳐 시의원 재선을 역임하고 재선의 기초단체장이 되었는데 여성지방의원이 경력을 지속·확충해 가는 의미 있는 경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여성의원의 경력지속율은 18% 수준이다.

주요 정당의 당헌당규는 국회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비례대표의원 후보에 단 한 번밖에 추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비례대표로 선출된 여성들은 그 경력을 지속하기 위해 반드시 지역구로 출마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대개 여성들이 비례대표의원으로서 정치에 입문하는 것을 감안하면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구에서 남성들과 치열한 경쟁을 겪으면서 정당공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2010년 당선된 여성의원 전체 응답자의 78.6%가 재출마하겠다고 응답해 경력지속의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치경력 지속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정당공천과정을 꼽고 있다(김원홍, 2010). 대개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후보들은 당선보다 공천받기가 더 어렵다고 호소한다.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변수인 정당공천을 받으려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정당마다 공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상향식 공천이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금과 인맥이 빈곤한 상황에서 더욱 혹독한 공천(경선)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조양민, 2006). 일반적으로 상향식 공천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간의 관계가 결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공천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정당공천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한상우, 2009; 전용주 외, 2010; 최준영, 2012; 윤종빈, 2012; 이동윤, 2012)에서는 후보 공천방법과 절차 등 제도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공천후보자의 당선과 직결되는 기준에 관한 연구(서현진, 2004; 김준석, 김민선, 2009; 전용주 외, 2011)는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여성의 정당 후보공천에 관한 연구에서는 주로 여성할당제와 같은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조현옥·김은희, 2010; 박경미, 2012; 강명구·하세현, 2016). 그러나 정당공천에 관한 연구에서는 후보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박명호·한기영, 2011; 전용주 외, 2011), 정치경력 및 심리적 특성(김성희, 2012; 안성호, 2015), 정당 및 지역구 요인(이동운 2012)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정당의 여성공천이 단순히 제도적 요인에 의해서만 공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천 대상자의 역량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제7회 지방선거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여성의 공천결정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정당공천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전·현직 여성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정당공천 결정요인에 대하여 자신의 경쟁력 인식을 파악하고, 공천자와 낙천자 간의 인식 차이와 정당공천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sup>1)</sup> 이와 같은 연구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남성중심의 정치 환경 속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경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여성정치인들에게 정당공천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첫 관문인 공천경쟁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정치인 중 공천자와 낙천자 간의 경쟁력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두 번째로는 여성정치인의 공천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 II. 정당공천과 정치적 충원

### 1. 정당공천의 의미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에서 정당은 국민과 국가 간의 중요한 연결기제로 민주정치의 본질적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정당이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공천(candidate selection)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정당정치는 가장 효율적 대의기제로서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정치과정에서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정치는 책임정치를 구현하는데 있어서도 그 한계가 있다(황아란, 2002: 99).

1) 조사대상인 전·현직 여성지방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현직의원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 모두 공천신청을 하였음

정당은 이념과 견해가 같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치적 가치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만든 자발적 조직이다. 따라서 동일 정당 소속 의원과 당원들이 동질성을 갖는 이유는 이들이 사회·경제적 배경뿐 아니라 오랫동안 내부에서의 경험과 훈련을 통하여 정치적 주장과 정책적 입장을 공유해왔기 때문이다(서현진, 2014: 76). 정당에서의 후보공천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을 미리 제한하고 결정지음으로써 선거 결과와 이후 의회 및 정부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선거에서 대중에게 호소하는 정당의 얼굴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정당의 후보공천은 정치충원(political recruitment)의 중요한 첫 단계로 선출직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풀(pool)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전용주·공영철, 2012). 특히 현대 정당은 정당 쇠퇴의 위기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그 정치적 생명력과 지지기반을 확장하려고 한다. 이에 공직후보자의 공천방식을 정당 당원과 일반 유권자에게 개방하는 공천민주화의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최준영, 2012). 특히 지방자치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해당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결정을 내리는 것을 감안할 때 후보공천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과정은 단순히 선거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표출되고 있는 정당 기능의 약화도 단순히 정당이 지니는 역할의 축소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오히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정당이 새롭게 적응해 나가는 일련의 정치과정이라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이동운, 2012: 95).

정당의 공천은 후보선정과 후보지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정당이 공직후보 지원자들 가운데 정당이 정한 규율과 절차에 따라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할 인물을 심사하여 인선하는 후보선정(candidate selection)의 의미(Epstein, 1967: 301-303)와 정당의 공천을 담당하는 기구가 법적 요건을 구비한 특정한 후보 지원자에게 후보 자격을 공인하여 그 정당의 공직후보로 선언하는 공식적인 절차인 후보지명(candidate nomination)의 의미(김광수, 2002: 121)를 내포하고 있다. 이때 공천된 후보의 자질은 입법부, 나아가 정부 구성원의 질을 결정하고 정치의 성격과 결과를 규정하게 된다. 또한 공천을 통해 선정된 후보들은 개인으로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을 정치체제와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전용주·공영철, 2012: 134). 그러므로 정당은 정당의 목표와 이해관계의 실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인 동시에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공천해야 하고 과제를 안게 된다.

2005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의원후보 선출에도 정당공천제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정당은 지방의원후보의 선출과정에 있어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정하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본선 경쟁력을 갖추는 최우선적인 방법이 되었다. 이는 공천과 후보의 당선가능성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연구들은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그렇지 않은 무소속 후보보다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서현진, 2004; 김석우, 2004; 김석우·임성학·전용주, 2008). 이와 같이 정당공천의 여부가 선거의 당락여부에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들은 정당의 공천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 2. 정치적 충원의 이론적 검토

정치적 충원은 낮은 단계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투표하고, 로비하고, 항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고, 높은 단계에서 보면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석우, 2004: 217) 정치적 충원에 관한 연구에서는 정치적 충원을 일정한 권력과 권위를 소유하고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 계층에서 충원된다는 엘리트이론(김석우, 2006; 이상목, 2008; 박명호·한기영, 2011; 이승철, 2015),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자신에게 가장 큰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합리적 선택이론(김석우, 2004; 문우진, 2005), 선거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는다라는 차원에서의 대리인이론(김성호, 2003; 이상팔, 2004; 최준영, 2009),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개인적 특성과 법, 제도, 구조와 같은 제도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정치적 충원이 이루어진다는 신제도주의 이론(김석우, 2004; 전용주·임성학·김석우, 2010; 전용주·공영철, 2012)으로 설명하고 있다.

엘리트이론은 사회 또는 정치체제의 권력이나 정치적 자원이 본질적으로 소수의 엘리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엘리트에 의한 엘리트층을 위한 정책결정이 된다는 이론(김석우, 2006)이다. 정치엘리트는 정치체제 내에서 권력과 권위를 소유하고 정책결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위의 지배계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상목, 2008). 정치엘리트 충원은 정치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배경 요인, 선거제도의 변화 또는 임명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 그리고 지연·학연 또는 정치적 정변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이상목, 2008). 엘리트이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로는 지방선거제도 변화와 지방정치엘리트의 충원양상을 분석한 연구(이상목, 2008), 한국 지방정치 엘리트 충원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박명호·한기영, 2011), 지방의원 충원의 특성과 변화 양상을 분석한 연구(이승철, 2015)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정치적 충원은 주로 정치엘리트에 의해 충원된다는 관점으로 학력, 성별, 연령, 직업 등과 같은 정치엘리트의 개인특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이상목, 2008: 144).

합리적 선택이론은 개인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 독립된 의사결정 행위자가 주어진 제약

속에서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려는 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규정하고 사회현상을 그러한 선택의 결과로서 이해하고 있다(문우진, 2005). 즉,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자신들에게 가장 큰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유권자의 입장에서 후보자들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한다는 관점도 적용될 수 있다.(정수현, 2012: 30). 합리적 선택이론에 관한 연구에서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에 대한 야망이나 관심, 욕구 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 경험과 경력, 경제적 지위, 학력 등과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들 수 있다.(김석우, 2004; 정수현, 2012). 합리적 선택이론과 관련된 연구로 기초단체장의 충원과정(김석우, 2004), 지역주의와 선거(강원택, 2000; 문우진, 2005; 안철현, 2005), 투표결정과 투표율(김왕식, 2008; 정수현, 2012) 등이 있다.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정치적 충원은 위임자(principal)인 유권자는 투표를 통하여 대리인(agent)인 후보자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충원을 설명하고 있다(이상팔, 2004).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정치적 충원의 결정은 대리인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다. 대리인 문제는 대리인은 위임받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대리인이 위임자의 뜻이나 의도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김영수, 2007). 따라서 유권자는 대리인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게 되는데 선택의 영향요인으로는 정치적 역량 및 신념, 도덕성, 신뢰, 지역 및 정당의 기여도 등이 있다(이상팔, 2004; 김영수, 2007; 최준영, 2009).

신제도주의 이론에서는 정책이나 제도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변화한다는 관점으로 조직과 제도를 복합적이고 동태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김한창, 2007). 이러한 관점에서 정당의 공천방식과 심사기준은 선거시기의 정치·사회적 이슈, 유권자의 관심사항, 규범과 문화 등에 따라 공천 방식과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동일한 공천후보자라 할지라도 공천과 낙천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공천 결정방식에 있어 과거 지명도 위주에서 경선 위주로 변화하고 있으며, 유권자의 선택에 있어 정당이나 지역연고의 중요성이 점차 낮아지고 후보자 개인의 역량과 도덕성과 같은 자질이 중요시됨에 따라 공천 결정방식과 심사기준이 변화하고 있다(길정아, 2011). 이러한 변화는 동일한 후보자할지라도 경쟁력이 변화할 수 있어 그로 인한 공천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김성희, 2012). 이와 같이 신제도주의 이론 관점에서 정당의 공천결정방식과 공천심사기준은 공천 후보자의 공천과 낙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정치적 충원은 선거제도나 공천제도, 정치적 환경, 규범, 문화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김석우, 2004; 전용주 외, 2010; 전용주·공영철, 2012).

이와 같은 네 가지 이론을 종합하면, 정당에서의 공천 결정요인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첫 번째는 엘리트이론을 바탕으로 한 후보자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다. 엘리트이론에서는 정치적 충원이 정치엘리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후보자 개인의 직업, 연령, 성별, 재산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중점으로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후보자 자신의 심리적 특성과 역량이 정치적 충원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후보자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나 욕구가 정치적 충원과 관련 있음을 주장하면서 개인의 성취욕구, 리더십 등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후보자들 중 자신들을 대표하여 효용가치를 가장 크게 가져다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한다는 관점에서 후보자들의 정치경력과 같은 능력과 역량에 관련된 요인들이 정치적 충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대리인이론 관점에서는 후보자는 유권자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최소인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유권자는 후보자들의 도덕성이나 책임감, 신뢰성 등의 심리적 특성과 자신들의 요구와 이익을 우선시하여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다. 네 번째로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정치적 충원은 후보자의 개인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개인적 특성이 정치 환경이나 선거제도, 정당의 공천제도, 법과 규범 등 제도적요인과 가장 부합되는 후보자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 3. 정당의 후보자 공천 결정요인

#### 1) 후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후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재산과 같은 후보자 개인의 특성을 의미하며, 후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정당공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후보자들이 경험한 사회화 과정과 가치관, 신념, 지식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과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정치적 이념과 신념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동일한 집단에 속한 개인은 집단 정체성을 통해 유사한 신념과 이념을 갖게 되고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개인과 다른 신념과 이념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박명호·한기영, 2011). 특히 지방정치에서는 후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지방 단위 정치 현상의 본질을 설명하고 방향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Dahl, 2013).

엘리트이론에 근거한 선행 연구에서는 정치적 충원의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의 인구사회적 속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후보자의 성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강점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구조가 대부분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천의 권한도 대부분 남성

에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정당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박명호·한기영, 2011). 연령은 후보자의 경륜과 경험, 지역적인 지명도, 정치적 네트워크, 의정활동을 위한 역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젊거나 나이가 많으면 불리할 수 있다(김성희, 2012). 학력수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해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및 정치적 관심도와 정치적 지위를 얻으려는 정치적 동기와 관련성이 있고 유권자들도 고학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학력일수록 당선 가능성이 높다(김석우, 2004; 전용주, 2010). 일반적으로 변호사, 경영인, 언론인, 교직자 등이 공직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시간활용과 복위가 용이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으며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유리하기 때문이다(Mariani, 2008). 마지막으로 재산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전용우 외, 2011). 그 밖의 선행연구에서도 후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공천과 당선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이승철, 2015; 이상묵, 2008; 전용주 외, 2011; 권경득·이현출, 2001; 김도태, 2008, 박명호·한기영, 2011).

## 2) 정치경력과 심리적 특성

합리적 선택이론 관점에서 유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줄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공천 후보자는 유권자 또는 정당과 같은 조직으로부터 제기되는 요구와 이익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Czudnowsk, 1975; 정수현, 2012; 이승철, 2015). 따라서 공천후보자는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리더십과 설득력이 뛰어나야 한다(Putnam, 1976).

이와 같이 합리적 선택이론 관점에서 후보자의 경력관련 요인과 심리적 특성요인은 공천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치경력에서 현직의원은 인지도와 명성에 있어 지역구의 선거 경쟁에서 유리(Ansolabehere et al., 2000)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도전후보에게 두려움을 주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배제시키는 효과도 있다(Gordon et al., 2007). 의원경력은 선거경험과 조직운영 경험이 경쟁후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정책 공약의 수립과 효과적인 선거운동, 지역구의 인지도 및 지지확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황아란, 2015). 정당경력과 공천지원 경력은 정당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고, 정당의 발전에 경쟁후보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공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이동윤, 2012). 다음으로 후보자의 심리적 특성 요인인 도덕성과 봉사정신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이수곤, 송건섭, 2011). 또한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과업에 몰두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책임을 완수할 가능성이

높으며, 리더십은 조직 간의 중재와 조절에 관한 역량으로 책임완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정연중·손승연, 2015). 그러므로 성취동기와 리더십은 후보자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밖의 선행 연구에서도 후보자의 심리적 특성이 공천결정과 당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이곤수·송건섭, 2011; 이동윤, 2012; 이상팔, 2004; Bochel & Denver, 1983; Hayes, 2005; 최준영, 2009; 안성호, 2015; 이현출, 2009), 정치경력도 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김성희, 2012; 이갑윤·이현우, 2000; 이상목, 2008; 전용주, 2005; 김석우, 2006; 이승철, 2015).

### 3) 정당 및 지역구

대리인이론 관점에서 정당 활동과 기여도 및 정당과의 일치도는 후보자가 정당의 추구이념이나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한다는 신뢰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천후보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동윤, 2012). 이는 후보자와 정당 간의 정치적 이념이 일치되고,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에 임하며, 기여도가 높은 경우 정당의 정치적 신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오미연 외, 2005). 또한 지역구에서의 이미지와 평판은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지역구와 시민들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공천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오미연 외, 2005; 이수곤·송건섭, 2011).

선행 연구에서도 정당의 기여도와 일치도가 공천결정의 기준이 되며(오미연 외, 2005; 문우진, 2005; 이동윤, 2012), 지역구의 인지도와 평판은 당선을 결정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요인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천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동윤, 2012; 오미연 외, 2005; 이수곤·송건섭, 2011).

### 4) 제도적 요인

신제도주의 관점에서는 공천제도가 공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석우, 2004). 이는 공직후보자의 당선은 개인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환경과 사회 규범 및 문화의 변화가 정당의 공천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기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천심사기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김석우, 2004; 전용주 외, 2010; 전용주·공영철, 2012). 이와 같이 신제도주의 이론관점에서 정당의 공천 결정방식과 심사기준의 변화는 후보자 경쟁력의 차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공천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도 공천결정방식과 심사기준이 공천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동윤, 2008; 전용주, 2005; 전용주·공영철, 2012; 전용주 외, 2010; 홍득표, 2000).  
 이상과 같이 정치적 충원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과 항목은 <표 1> 과 같다.

<표 1> 공천결정 요인과 항목

관련이론	요인	항목	선행연구
엘리트 이론	인구사회학적 속성	학력	권경득, 이현출(2001), 김도태(2008), 박명호, 한기영(2011), 이상목(2008), 이승철(2015), 전용주 외(2011)
		직업	권경득, 이현출(2001), 김도태(2008), 박명호, 한기영(2011), 전용주 외(2011)
		연령	권경득, 이현출(2001), 김도태(2008), 박명호, 한기영(2011), 이갑윤, 이현우(2000), 이승철(2015), 전용주 외(2011)
		재산	김석우(2006), 박명호, 한기영(2011), 전용주 외(2011)
합리적 선택이론	정치 경력	현직의원	김성희(2012), 이갑윤, 이현우(2000), 이상목(2008), 전용주(2005)
		의원경력	김성희(2012), 이갑윤, 이현우(2000), 이상목(2008)
		정당경력	김석우(2006), 이승철(2015), 전용주 외(2011), 최승범, 이환범(2003)
		공천지원 경력	윤종빈(2012), 오미연 외(2005), 김준석, 김민선(2009)
	심리적 특성	도덕성	이곤수, 송건섭(2011), 이동윤(2012), 이상팔(2004), Bochel & Denver(1983), Hayes(2005)
		신뢰성	이곤수, 송건섭(2011), 최준영(2009), 안성호(2015)
		성취욕구	이현출 (2009), 이동윤(2012), 이상팔(2004),
		리더십	이곤수, 송건섭(2011), Bochel & Denver(1983), Hayes(2005)
대리인 이론	정당/지역구 요인	정당활동	이동윤(2012)
		재정적 기여도	이동윤(2012), 오미연 외(2005)
		정당과의 일치도 (이념, 신념 등)	오미연 외(2005), 문우진(2005), 이동윤(2012)
		지역구 평판	이동윤(2012), 오미연 외(2005)
신제도 주의	제도적 요인	공천결정 방식	이동윤(2008), 전용주(2005), 전용주, 공영철(2012),
		공천심사 기준	전용주, 임성학, 김석우(2010), 홍득표(2000)

#### 4. 여성의 정치적 충원에 관한 선행연구

여성의 정치적 충원에 관한 연구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공천문제, 정치충원 결정요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정치개혁의 한 방안으로 도입된 여성할당제도가 여성의 정치적 충원에 크게 기여했다는 견해에는 이견이 없다. 처음 여성할당제가 제도적으로 도입된 것은 2000년 정당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비례대표 광역의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에게 30%이상 배정하도록 의무규정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2년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30%이상을 권고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또한 비례대표 광역의회의원 선거에서 50%이상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명부 순위 2인마다 1인은 여성을 포함하도록 강제규정이 신설되었다. 가장 주목할 것은 2006년 기초의회의원선거에 기존의 여성할당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당공천제가 확대·적용되어 여성의원인 2002년보다 다섯 배에 육박하게 된다. 특히 2010년 신설된 지역구 여성할당제도는 국회의원선거에는 적용되지 않고 지방선거에만 적용된 제도로 진일보한 제도개선을 이루었다.

〈표 2〉 선거제도개혁과 여성의원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6년도와 2010년도에 획기적인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선거 도입초기인 1991년 여성의원 비율은 0.9%(4,303명 중 40명)에 불과하였고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여성비율은 1.6%(4,541명 중 71명),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여성비율도 2.2%(3,485명 중 77명)에 그쳤다. 하지만 기초의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여성기초의원비율은 지역구 4.4%(2,513명 중 110명)로 지역구 여성당선자의 수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고 비례대표 여성당선자는 87.2%(375명 중 327명)로 평균 15.1%의 비율을 보였다. 지역구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비율은 지역구 10.9%(2,512명 중 274명)로 4회 선거에 비해 2배 이상의 증가하였고 비례대표 여성당선자는 93.4%(376명 중 351명)로 평균 21.6%를 기록했다. 최근 치러진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여성의원비율은 광역의원의 경우 14.8%(지역구 58명, 비례대표 55명)로 113명 당선되었고 기초의원의 경우 25.3%(지역구 369명, 비례대표 363명)로 732명이 당선되어 총 3,951명의 당선자 중 여성이 21.6%인 854명에 이르렀다. 아쉽게도 여성할당제가 적용되지 않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여성이 거의 전무한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여성할당의 수준과 범위를 어떻게 적용해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증진할 것인지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표 2〉 선거제도개혁과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의 추이

연도	구분	선거제도개혁	여성비율(당선자수)		평균
			광역	기초	
1991			0.9%(8명)	0.9%(40명)	0.9%(48명)
1995	지역		1.5%(13명)	1.6%(71명)	2.3%(127명)
	비례		44.3%(43명)	없음	
1998	지역		2.3%(14명)	1.6%(56명)	1.8%(97명)
	비례		36.5%(27명)	없음	
2002	지역구	광역의회의원 30%이상 여성할당 권고(보조급 인센티브 지급, 정당법 제 31조 제6항 신설)	2.3%(14명)	2.2%(77명)	3.3%(142명)
	비례	광역의회 50%이상 여성할당하고 명부순위 2인마다 1인의 여성포함 (정당법 제31조 제5항 신설)	67.1%(49명)	없음	
2006	지역	지방의회의원 30%이상 여성할당 권고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 신설) 광역의회의원선거 여성추천보조금제 (정치자금법 신설)	4.7%(31명)	4.4%(110명)	15.1%(528명)
	비례	교호순번제 (공직선거법 개정)	73.1%(57명)	87.2%(327명)	
2010	지역	국회의원선거구별로 1인 이상 여성할당제(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 신설)	8.1%(55명)	10.9%(274명)	21.6%(739명)
	비례	제도유지	71.6%(58명)	93.6%(352명)	
2014	지역	제도유지	8.2%(58명)	14.6%(369명)	21.6%(845명)
	비례	제도유지	65.5%(55명)	95.8%(363명)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여성의 정치적 충원은 지금도 미진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이 여성의 정치적 충원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공천문제, 정치충원 결정요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여성할당제가 결과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성할당제의 제도로 인하여 여성의 정치적 충원이 개선되었다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나, 여성할당제 준수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Bjarnegård & Zetterberg(2011)는 여성할당제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제도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Davidson-Schmich(2006)은

독일을 중심으로 여성할당제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할당제를 준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문화적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남성중심의 정치문화가 여성의 정치적 충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는 것이다. Fox & Lawless(2011)의 연구에서도 여성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남성과 동일한 역량을 갖추고 있더라도 남성보다는 역량의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여성의 정치적 충원 가능성이 감소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연구에서 엄태석(2010)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역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의회를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김민정(2014)은 여성할당제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여성의원의 양적 증가는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여성관련 입법이 증가시켜 어느 정도 여성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효과와 더불어 향후 이를 증진·발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도 제시되었다. Bjarnegård & Zetterberg(2011)는 정당의 관행이 양성평등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Fox & Lawless(2010)은 여성이 정치에 자신감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능동적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Fox & Lawless(2011)는 여성도 자신이 남성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Fox & Oxley(2003)는 여성의 정치적 충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적합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조현옥과 김은희(2010)는 여성할당제 제도화 과정을 고찰하였는데 민주화를 지향하는 국내의 정치·사회적 조건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본연의 목적 보다는 법과 제도에 의해 단순히 양적인 정치참여 확대의 수준으로 이루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질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안성호(2015)는 여성후보자 공천의 문제점과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정치제도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거버넌스 활용부족의 3가지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향후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제도적 개선,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 거버넌스를 통한 여성리더십의 향상을 제안하였다.

여성후보자의 공천 및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에서 Bjarnegård & Zetterberg(2011)는 정당의 공천관행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고 Fox & Lawless (2010; 2011)는 여성의 정치참여 욕구와 자기 효능감과 같은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Fox & Oxley(2003)은 직종(직업)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시하였고 Davidson-Schmich(2006)은 남성중심의 정치문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황아란(2006)은 여성의 정치참여와 대표성에 대한 요구가 지방선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권력극대화 모형을 바탕으로 설명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정당공천은 정당에 대한 기여도와

충성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기에 정치인의 공천이 많았다고 결론지었다. 서현진(2004)은 17대 총선에 출마한 여성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인적 배경이 당선과 정당공천에 미친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파악하였다. 먼저 여성의 의회진출에는 정당효과가 개인적 배경이나 경험보다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정당 공천에서는 학력 수준이 높고 재산이 많거나 정치인의 경험 많은 후보자의 공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미연 등(2005)은 여성 국회의원 공천후보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주요 정당의 여성공천과정을 분석하고 국회 수준의 여성정치의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15대와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직업적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천을 실시하였고, 17대에서는 정치적 경험성과 여성단체의 대표성에 중점을 두고 공천후보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민정(2009)은 18대 총선, 여성정치인의 총원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정당공천에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보다는 지역적 고려, 재정적 기여도, 정당내의 역학관계 등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공천을 받은 여성후보자는 전문가와 정당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이 여성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여성의 정치참여는 '동수를 통한 평등'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젠더이슈를 포함해 여성친화적인 정책수립에 성과가 두드러진다. 또한 여성할당제와 같은 법과 제도는 여성의 정치참여의 양적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양적 확대를 바탕으로 향후 질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여성 후보의 공천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인 학력, 재산, 정치인으로서의 경험, 전문직 여부, 그리고 정당 및 제도적 요인으로 정당에 대한 기여도, 정당내의 역학관계 등이 제시되고 있다.

### Ⅲ. 측정도구 및 자료수집

####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여성의 정당공천 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당 공천의 경험이 있는 전·현직 여성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정당공천 결정요인에 대한 여성공천자와 여성낙천자 간의 경쟁력 인식<sup>2)</sup> 차이와 정당공천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정치적 총원에 관련된 이론과 공천결정요인 및 당선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바탕

2) 여성지방의원의 경우, 지역구 할당제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1명 이상이 추천됨으로 공천심사시 동일선거구에서 여성끼리 경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논문에서 여성공천자와 여성낙천자는 동일 선거구에서 공천경합을 벌인 경쟁관계가 아니고 서로 다른 지역구를 신청한 경우이다. '경쟁력'은 응답자가 인식하는 남성공천경쟁후보들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의미한다.

으로 요인과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은 엘리트이론을 바탕으로 공천 후보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 합리적 선택이론 및 대리인이론을 바탕으로 정치경력과 심리적 특성, 대리인이론을 바탕으로 한 정당 및 지역구요인,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제도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표 3> 측정문항

요인	항목	선행연구
인구사회학적 속성	나의 학력은 경쟁후보보다 높다.	권경득, 이현출(2001), 김도태(2008), 박명호, 한기영(2011), 이상목(2008), 이승철(2015), 전용주 외(2011), 이갑윤, 이현우(2000), 김석우(2006)
	나의 직업은 경쟁후보에 비하여 더 의원직 수행에 적합하다.	
	나의 연령은 경쟁후보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나의 재산은 경쟁후보에 비하여 많다.	
정치 경력	현직의원의 경쟁력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김성희(2012), 이갑윤, 이상목(2008), 전용주(2005), 이승철(2015), 윤종빈(2012), 오미연 외(2005), 김준석, 김민선(2009)
	의원경력은 경쟁후보보다 많다.	
	정당경력은 경쟁후보보다 많다.	
	공천지원 횟수는 경쟁후보보다 많다.	
심리적 특성	도덕성 경쟁후보보다 높다.	이근수, 송건섭(2011), 이동윤(2012), 이상팔(2004), Bochel & Denver(1983), Hayes(2005), 최준영(2009), 안성호(2015), 이현출(2009)
	신뢰성 경쟁후보보다 높다.	
	성취욕구 경쟁후보보다 높다.	
	리더십 경쟁후보보다 우수하다.	
정당/지역구 요인	정당 활동은 경쟁후보보다 적극적이다.	이동윤(2012), 오미연 외(2005), 문우진(2005)
	정당의 재정적 기여도는 경쟁후보보다 높다.	
	정당과의 일치도는 경쟁후보보다 높다.	
	지역구 평판은 경쟁후보보다 좋다.	
제도적 요인	공천결정 방식은 경쟁후보보다 나에게 유리하다.	이동윤(2008), 전용주, 임성학, 김석우(2010), 홍득표(2000)
	공천심사 기준은 경쟁후보보다 나에게 유리하다.	

인구사회학적 속성은 상대후보 대한 자신의 경쟁력을 학력, 직업, 연령, 재산의 4문항으로 구성하여 매우 열세(1)부터 매우 우수(7)까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여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정치경력은 상대후보 대한 자신의 경쟁력을 현직의원, 의원경력, 정당경력, 공천지원경력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특성은 상대후보 대한 자신의 경쟁력을 도덕성, 신뢰성, 성취욕구, 리더십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당 및 지역구 요인은 상대후보 대한 자신의 경쟁력을 정당활동, 정당기여도, 정당과의 일치도, 지역구 평판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도적 요인은 상대후보 대한 자신의 경쟁력을 공천결정 방식과 공천심사기준의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

(7)까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평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 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선거에 공천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새누리당 전·현직 여성의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정 정당인 새누리당 전·현직 여성의원들을 대상으로 한정된 것은 정당에 따라 공천결정 방식과 심사기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공천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일까지 약 2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전·현직 여성 의원은 총 185명으로 무응답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7명의 자료를 제외한 178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sup>3)</sup>

전체 응답자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공천자가 65.2%로 낙천자가 34.8%에 비하여 많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은 전체적으로 50대가 44.9%로 가장 많았으며, 낙천자의 경우 40대 45.2%, 공천자의 경우 50대 5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체적으로 대학원 이상이 62.9%로 가장 많았는데, 낙천자의 경우 71.0%가 대학원 이상이었으며, 공천자는 58.6%로 낙천자의 비중이 높았다. 대상자들의 학력수준이 높은 것은 평소 경력관리 및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재임 중 학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공천신청 전의 직업은 전체적으로 시민단체가 29.2%로 가장 많았으며, 낙천자의 경우 38.7%가 시민단체였고, 공천자는 24.1%로 나타나 낙천자의 경우가 높았다. 재산의 경우 1억~5억원이 46.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낙천자 54.8%, 공천자 41.4%로 낙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경력은 1-5년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낙천자는 41.9%, 공천자는 36.2%로 낙천자가 많은 분포를 보였다. 정당경력은 15년 이상이 37.1%로 가장 많았으며, 낙천자는 38.7%, 공천자는 36.2%로 낙천자가 많은 분포를 보였다.

<sup>3)</sup> 2006년 당선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소속 여성의원 수의 수는 298명, 2010년에는 312명, 2014년 424명으로 타 정당에 비해 가장 많다. 2010년 재선율 18%, 2014년 재선율 25%를 감안하면 모집단은 대략 1000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4> 응답자 특성

(N=178)

변수	항목	공천		낙천		합계	
		빈도	%	빈도	%	빈도	%
연령	30대	8	6.9	0	0.0	8	4.5
	40대	12	10.3	28	45.2	40	22.5
	50대	62	53.4	18	29.0	80	44.9
	60대 이상	34	29.3	16	25.8	50	28.1
학력	고졸이하	4	3.4	0	0.0	4	2.2
	고졸	2	1.7	6	9.7	8	4.5
	전문대졸	8	6.9	4	6.5	12	6.7
	대졸	34	29.3	8	12.9	42	23.6
	대학원	68	58.6	44	71.0	112	62.9
공천전 직업	회사원	4	3.4	4	6.5	8	4.5
	공무원	16	13.8	6	9.7	22	12.4
	검판사	26	22.4	6	9.7	32	18.0
	교수	6	5.2	4	6.5	10	5.6
	변호사	12	10.3	14	22.6	26	14.6
	경영/언론사	4	3.4	4	6.5	8	4.5
	주부	10	8.6	0	0.0	10	5.6
	시민단체	28	24.1	24	38.7	52	29.2
재산	기타	10	8.6	0	0.0	10	5.6
	1억 이하	2	1.7	0	0.0	2	1.1
	1-5억	48	41.4	34	54.8	82	46.1
	6-10억	30	25.9	6	9.7	36	20.2
	11-15억	16	13.8	12	19.4	28	15.7
	16-20억	6	5.2	4	6.5	10	5.6
정치 경력	20억 이상	14	12.1	6	9.7	20	11.2
	1년 이하	4	3.4	0	0.0	4	2.2
	1-5년	42	36.2	26	41.9	68	38.2
	6-10년	34	29.3	22	35.5	56	31.5
	11-15년	16	13.8	4	6.5	20	11.2
정당 경력	15년 이상	20	17.2	10	16.1	30	16.9
	1-5년	16	13.8	6	9.7	22	12.4
	6-10년	34	29.3	18	29.0	52	29.2
	11-15년	24	20.7	14	22.6	38	21.3
	15년 이상	42	36.2	24	38.7	66	37.1

## IV. 분석결과

### 1. 공천여부에 의한 경쟁력 인식의 차이

정당의 후보자 공천여부에 의한 전·현직 여성의원들이 인식하는 경쟁후보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공천결정 요인에 대한 경쟁력 인식의 차이는 <표 5>, 각 요인을 구성하는 속성별 차이는 <표 6>과 같다.

<표 5> 공천결정 요인에 대한 경쟁력 인식의 차이

공천결정요인	전체		공천자 경쟁력	낙천자 경쟁력	차이분석 t-값
	평균	표준편차			
인구사회학적	4.778	1.012	4.907	4.536	2.362*
정치경력	4.908	1.443	5.073	4.600	2.107*
심리적 특성	5.688	1.242	5.789	5.500	1.484
정당/지역구	5.096	1.239	5.250	4.807	2.302*
제도적요인	4.534	1.710	4.905	3.839	4.140***

\*p<.05, \*\*p.01, \*\*\*p.001

우선 후보자 공천 결정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전체적으로 공천자의 경쟁력 인식이 낙천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경쟁력 인식은 공천자의 경우 평균 4.907로 낙천자의 4.536보다 높아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362$ ,  $p<.05$ ). 또한 정치경력 평균에서도 공천자는 5.073으로 낙천자의 4.600보다 높아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107$ ,  $p<.05$ ). 정당지역구 요인에서도 공천자의 평균이 5.250으로 낙천자의 평균 4.80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302$ ,  $p<.05$ ). 제도적 요인에 대한 경쟁력 인식에서도 공천자의 평균이 4.905로 낙천자의 평균 3.8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4.140$ ,  $p<.001$ ). 그러나 심리적 특성은 공천자의 평균이 5.789로 낙천자의 5.5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후보자 공천결정 요인을 구성하는 속성별 경쟁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6>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재산은 공천자의 경쟁력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은 낙천자의 경쟁력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천자가 낙천자에 비하여 연령은

낮고, 재산은 많다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이다.

정치경력에서는 공천자는 낙천자에 비하여 정당경력과 공천지원 경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특성에서는 도덕성이 공천자가 낙천자에 비하여 높은 경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공천자가 낙천자에 비하여 도덕성에 대한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당 및 지역구 요인에서는 정당 활동, 정당의 재정적 기여도, 정당과 자신의 신념과 이념 일치도에서 공천자가 낙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천자는 낙천자에 비하여 정당과의 이념이 일치하고, 적극적인 정당 활동과 재정 기여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요인에서 공천결정 방식이나 공천심사기준에 대한 경쟁력이 공천자가 낙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천자는 낙천자에 비하여 공천결정 방식이나 공천심사기준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후보자 공천여부에 의한 속성별 경쟁력의 차이

요인별 속성		전체		공천자 경쟁력	낙천자 경쟁력	차이분석 (t-값)
		평균	표준편차			
인구사회학적	학력	5.494	1.549	5.517	5.452	0.269
	직업	5.562	1.293	5.621	5.452	0.831
	연령	4.865	1.592	4.672	5.226	-2.234**
	재산	3.787	1.717	4.259	2.903	5.402***
정치경력	현직의원	4.910	1.731	5.052	4.645	1.498
	의원경력	4.978	1.890	5.052	4.839	0.716
	정당경력	5.090	1.808	5.328	4.645	2.432**
	공천지원 경력	4.632	1.514	4.862	4.172	2.893**
심리적 특성	도덕성	5.562	1.584	5.828	5.065	3.139***
	신뢰성	5.843	1.393	5.931	5.677	1.158
	성취욕구	5.663	1.369	5.724	5.548	0.815
	리더십	5.685	1.407	5.672	5.710	-0.168
정당 및 지역구	정당 활동	5.258	1.737	5.500	4.806	2.578***
	재정 기여도	4.000	1.860	4.259	3.516	2.578***
	정당과 일치도	5.438	1.426	5.569	5.194	1.682*
	지역구 평판	5.685	1.333	5.672	5.710	-0.177
제도적 요인	공천결정 방식	4.528	1.786	4.862	3.903	3.521***
	공천심사기준	4.539	1.773	4.948	3.774	4.425***

\*p<.05, \*\*<p.01, \*\*\*<p.001

## 2. 후보자 공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는 공천과 낙천으로 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전·현직 여성의원들이 인식하는 경쟁후보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으로 하였다. 상대적 경쟁력은 전·현직 여성의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학력, 직업, 연령, 재산, 정치경력의 현직의원, 의원경력, 정당경력, 공천지원으로 하였으며, 심리적 특성은 도덕성, 신뢰성, 성취욕구, 리더십으로 하였다. 또한 정당 및 지역구 요인으로는 정당활동, 재정기여도, 정당과 일치도, 지역구평판으로 하였으며, 제도적 요인으로는 공천방식과 심사기준으로 하였다.

<표 7> 후보자 공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속성	B	p	Exp(B)	95% Exp(B)	
					Lower	Upper
인구사회학적	학력	0.012	0.949	1.012	0.707	1.449
	직업	0.117	0.673	1.124	0.652	1.936
	연령	-0.145	0.093*	0.865	0.620	1.207
	재산	0.511	0.013**	1.667	1.113	2.497
정치경력	현직의원	0.031	0.894	1.032	0.650	1.637
	의원경력	0.162	0.048*	1.159	1.019	1.483
	정당경력	0.146	0.480	1.158	0.772	1.737
	공천지원	-0.014	0.953	0.986	0.621	1.565
심리적 특성	도덕성	0.574	0.019**	1.776	1.099	2.870
	신뢰성	-0.208	0.554	0.812	0.408	1.618
	성취욕구	0.401	0.031**	1.493	0.887	2.513
	리더십	0.632	0.052*	1.532	1.181	2.005
정당 및 지역구	정당활동	0.190	0.093*	1.209	0.782	1.867
	정당기여도	0.449	0.030**	1.338	0.826	1.956
	일치도	0.299	0.293	1.349	0.772	2.355
	지역구평판	0.301	0.055*	1.260	0.841	1.943
제도적 요인	공천방식	-0.075	0.762	0.928	0.571	1.507
	심사기준	0.466	0.005***	1.594	0.954	2.662
	상수	-2.507	0.082	0.082		

\*p<0.1, \*\*p<0.05, \*\*\*p<0.01

정당의 후보자 공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의 경쟁력 요인을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인구나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연령에 대한 경쟁력이 낮을수록, 재산에 대한 경쟁력이 높을수록 공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0.865배로 낮아지며, 재산이 많을수록 공천가능성이 1.667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치경력에서는 의원경력에 대한 경쟁력이 높을수록 후보자 공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원경력이 많을수록 공천의 가능성이 1.159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리적 특성에서는 도덕성과 성취욕구, 리더십에 대한 경쟁력이 높을수록 공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의 경쟁력이 높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공천가능성이 1.7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취욕구의 경쟁력이 높을수록 1.493배 공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더십의 경쟁력이 높을수록 1.532배 공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당 및 지역구요인에서는 정당 활동, 재정 기여도, 지역구 평판의 경쟁력이 높을수록 공천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정당활동에 적극적이면 공천가능성이 1.209배 높아지며, 재정 기여도를 많이 하는 경우에도 공천가능성이 1.338배, 지역구 평판의 좋을수록 공천가능성이 1.260배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요인에서는 심사기준에 대한 경쟁력이 높을수록 공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사기준이 자신에게 유리할 경우 공천가능성은 1.59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여성위원의 비율은 통시적 관점에서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공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전히 미진하고 저조한 실정이다. 생활정치라는 말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현안을 다루는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국회의 상황이 지방의회의 상황보다 더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볼 때, 한 국가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과 법·제도의 측면에서 양성평등의 진일보한 정치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제도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의원경력이 있고 공천에 도전한 경험이 있는 178명의 전·현직 여성 지방의원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천여부에 따른 공천결정요인에 대한 경쟁력 인식차이와 공천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공천자와 낙천자의 경쟁력 인식차이를 비교한 결과 공천자의 경쟁력 인식은 낙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천자의 인구사회학적 경쟁력과 정치경력에 대한 경쟁력, 정당 및 지역구 요인에 대한 경쟁력, 제도적 요인에 대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천자는 낙천자에 비해 연령이 낮고 재산이 많으며 정당 및 공천지원 경력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도덕성 측면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었고 정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재정 기여도에서의 경쟁력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공천결정 방식과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경쟁력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정치인이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도덕성이 높아야 하며, 한 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에 임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엘리트이론 관점에서 개인적 특성이 정치적 충원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는 선행연구(박명호·한기영, 2011; 이승철, 2015)와 합리적 이론과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후보자 공천에 있어 정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후보자에게 공천을 한다는 선행연구(김영수, 2007; 정수현, 2012),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공천결정 방식이나 심사기준과 같은 요인이 공천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김석우, 2004; 전용주 외, 2010)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둘째, 후보자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으로 연령이 낮고 재산이 많을수록, 정치경력에서 의원 경력이 많을수록, 후보자의 심리적 특성에서 도덕성과 성취욕구, 리더십의 역량이 높을수록, 정당 활동과 재정적 기여도가 높을수록, 심사기준에 적합할수록 공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천결정에 관한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공천자가 낙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평균 연령이 낮다는 박명호와 한기영(2011)의 연구, 재정적 안정성이 후보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Mariani(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이근수, 송건섭, 2011; 정연중, 손승연, 2015)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그 밖에 정당 활동과 기여도가 높을수록 정당에서 후보자에 대한 신뢰도 높아져 공천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동윤(2012)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셋째, 공천여부에 의한 경쟁력 차이와 공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속성에서는 경쟁력 차이와 공천결정 영향요인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치경력에서 의원경력은 중요한 공천결정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경쟁력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원경력은 의정활동 수행이나 지역구 선거조직 운영 등의 역할을 의미(황아란, 2015)하는 것으로 정당의 공천결정 과정에서 당선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인데 유의하지 않은 것은 낙천자의 경우도 의원경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리적 특성에서 성취욕구와 리더십은 중요한 공천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경쟁력 차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성취욕구와 리더십은 후보자가 책무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이근수, 송건섭, 2011)으로 정당의 공천결정 과정에서 후보자의 책무수행 역량을 중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당 및 지역구 요인에서 지역구평판은 중요한 공천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경쟁력 차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역구 평판은 득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선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오미연 외, 2005). 따라서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당선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정당에서의 공천은 후보자 공천에 있어 의정활동 수행에 관한 역량과 당선 가능성을 중요한 결정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여성정치인이 정당의 후보자 공천에 성공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정당 활동을 통한 정당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대리인이론 관점에서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자는 정당을 대신하여 유권자와 직접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 및 공약 등을 유권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야 하며, 제시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당은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정당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후보자를 공천하기 때문이다.

둘째, 도덕성과 리더십과 같은 심리적 특성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도덕성은 유권자와 정당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도덕성이 부족한 후보자는 공천의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다. 또한 리더십은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표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정당과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정당과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신뢰와 능력의 평가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천을 희망하는 여성정치인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공천심사기준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적합한 역량의 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당의 공천심사기준은 정당의 이념과 당헌 및 당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천을 희망하는 여성정치인은 공천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치인의 후보자 공천 결정요인을 엘리트 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대리인 이론, 신제도주의 이론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여성정치인이 정당의 후보공천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여성정치인의 공천에 관한 연구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한계를 극복하였으며, 미래의 여성정치인의 기본 역량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시사점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정당의 전·현직 여성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구결과의 일반화 한계가 있다. 이는 공천결정요인이 정당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복수의 정당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공천결정요인의 정당 간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치인의 정당공천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표본에 비해 독립변인이 너무 많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복수의 정당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표본을 확보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지방의원선거의 정당공천은 시·도당에 위임된 사항이란 점에서 지역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표본수의 문제로 인하여 이를 분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표본을 확보하여 지역 간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강원택. (2000). 지역주의 투표와 합리적 선택. 『한국정치학회보』, 34(2): 51-67.
- 강운호. (2012). 6.2 지방선거를 통해 본 주민참여: 부산시를 중심으로.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6(1): 29-52.
- 국회가족여성위원회. (2013). 『지방선거 정치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 국회입법조사처. (2014).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과제』, NARS정책보고서 제30호.
- 권경득·이현출. (2001). 정치권력 교체와 행정엘리트의 충원. 『한국정책학회보』, 10(1): 117-140.
- 권영설. (2004).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그 긴장과 조화의 과제. 『공법연구』, 33, 125-157.
- 권오성·한형서. (2008). 한국에서 정치적 갈등에 대한 시론적 대응방안. 『한독사회과학논총』, 18(1): 73-102.
- 길정아. (2011). 국회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의 동학: 제 18 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0(1): 291-316.
- 김광수. (2002). 『선거와 정당』, 서울: 박영사.
- 김도태. (2008). 18대 총선과정에서의 충북지역 당선자 당선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25(1): 109-136.
- 김민정. (2009). 18대 총선에 나타난 여성정치인의 충원. 『사회과학연구』, 17(1): 50-82.
- \_\_\_\_\_. (2014).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효과. 『페미니즘 연구』, 14(2): 203-241.
- 김석우. (2004). 기초단체장 충원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8(1): 215-231.
- \_\_\_\_\_. (2006). 17대 총선과 정치적 충원.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2): 287-315.
- 김석우·임성학·전용주. (2008). 한국정치사에서의 5-31 지방선거의 의미.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2): 349-373.
- 김성호. (2003). 『지방의회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성희. (2012).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위원의 당선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선거제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4(1): 23-48.
- 김영수. (2007).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1: 185-207.
- 김왕식. (2008). 투표 참여와 기권: 합리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46: 295-312.
- 김용철. (2007). 지방자치제하에서 여성정치참여의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정책학회보』, 16(4): 307-329.

- 김원홍·김인순·김은주. (2014). 「2014지방선거 결과분석을 통한 정치분야 여성대표성 제고방안 모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원홍·윤덕경·김은경·김은수. (2006). 「기초의회 선거제도의 변화가 여성의 대표성에 미치는 효과와 향후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원홍·이현출. (2010).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원경력 지속 및 확충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준석·김민선. (2009). 도전자의 역량이 선거구의 투표율과 도전자의 당선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제 18 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6(3): 73-99.
- 김한창. (2007). 연구논문: 공무원채용제도의 진화이론과 신제도주의 통합적 설명가능성: 국가공무원법에 나타난 제도변화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3(2): 163-212.
- 남부현·김영인·김옥남. (2016). 공공기관 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0(2): 101-133.
- 문우진. (2005). 지역분위투표와 합리적 선택이론 공간모형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21(3): 151-186.
- 박명호·한기영. (2011). 한국 지방정치 엘리트 층원의 계속성과 변화에 관한 시론. 『한국정당학회보』, 10(2): 93-131.
- 서현진. (2004). 17대 총선 여성후보자의 개인적 배경과 주요정당 공천. 『국제정치논총』, 44(4): 263-289.
- \_\_\_\_\_. (2014). 정당 활동가의 의회층원에 관한 연구: 19 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3(1): 75-100.
- 세계경제포럼(<https://www.weforum.org/>).
- 손봉숙·박의경. (2000). 『한국민주주의와 여성정치』, 서울: 풀빛.
- 안성호. (2015). 6·4지방선거 여성후보자공천 문제점과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사회과학연구』, 32(1): 31-75.
- 안철현. (2005). 한국 지역주의와 17대 총선. 『지역사회연구』, 13(3): 113-134.
- 엄태석. (2010).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역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13(1): 71-94.
- 오미연·김기정·김민정. (2005). 한국정당의 여성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과 한국의 여성정치. 『한국정치학회보』, 39(2): 369-397.
- 유재원. (2003). 『한국지방정치론』, 서울: 박영사.
- 윤종빈. (2012).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한국정당학회보』, 11(2): 5-37.
- 은종태. (2015).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평가 및 정착방안.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9(2): 101-136.

- 이갑윤·이현우. (2000).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한국정치학회보』, 34(2): 149-170.
- 이근수·송건섭. (2011). 지방선거의 유권자 투표 선택, 정당인가 후보인가.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4): 339-360.
- 이동윤. (2008). 정당의 후보선출제도와 정당정치 문제점. 『한국정당학회보』, 7(1): -37.
- \_\_\_\_\_. (2012). 한국 정당의 후보공천과 대표성. 『정치정보연구』, 15(1): 93-126.
- 이상목. (2008). 지방선거제도 변화와 지방정치엘리트의 충원양상. 『한국행정학회보』, 42(1): 123-147.
- 이상팔. (2004).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본 지방의회의 활성화 조건. 『지방행정연구』, 18(1): 51-75.
- 이승철. (2015). 지방의원 충원의 특성과 변화 양상-대구광역시 기초의원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회보』, 29(2): 151-172.
- 이현출. (2009). 17대 국회 의원입법안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8(1): 255-286.
- 전용주. (2005). 후보공천과정의 민주화와 그 정치적 결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9(2): 217-236.
- 전용주·공영철. (2012). 정당 공천 유형과 경쟁도 그리고 선거 경쟁력. 『정치정보연구』, 15(2): 133-151.
- 전용주·임성학·김석우. (2010). 정당공천유형과 후보의 본선경쟁력. 『OUGHTOPIA』, 25(1): 127-156.
- 전용주·차재권·임성학·김석우. (2011). 한국 지방 정치엘리트와 지방 정부 충원. 『한국정당학회보』, 10(1): 35-69.
- 정수현. (2012). 투표율과 사회경제적 지위모델: 제 4 회와 제 5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한국정치연구』, 21(1): 27-55.
- 정연중·손승연. (2015). 리더의 성취욕구가 리더십 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9: 111-136.
- 조양민. (2006). 『당선보다 어려운 공천 100% 성공백서』, 서울: 예원미디어.
- 조재욱. (2011). 정당공천제와 여성의 정치참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93-207.
- 조현옥, 김은희. (2010). 한국 여성정치할당제 제도화 과정 10 년의 역사적 고찰. 『동향과전망』, 110-139.
- 최승범·이환범. (2003). 기초자치단체장 연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2003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47-669.
- 최준영. (2009). 특집논문 의회정치와 신뢰 정치적 신뢰 변화의 원인과 결과 이론적 쟁점. 『의정연구』, 27: 65-93.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2014). 『6·4 지방선거, 양성평등한가』, 토론회 자료집.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2015). 「오픈프라이머리와 전략공천」, 토론회3부 자료집.
- 홍득표. (2000). 정당의 공직후보 결정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4(3): 173-191.
- 황아란. (2002). 지역주의와 지방자치. 『한국행정학보』, 36(2): 129-43.
- \_\_\_\_\_. (2006). 2006년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충원. 『지방행정연구』, 20(3): 51-79.
- Ansolabehere, S., Snyder Jr, J. M., and Stewart III, C. (2000). Old voters, new voters, and the personal vote: Using redistricting to measure the incumbency advantag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7-34.
- Bjarnegård, E., and Zetterberg, P. (2011). Removing quotas, maintaining representation: overcoming gender inequalities in political party recruitment. *Representation*, 47(2): 187-199.
- Bochel, J., and Denver, D. (1983). Candidate selection in the Labour Party-What the selectors seek.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3(1): 45-69.
- Dahl, R. A. (2013). *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avidson-Schmich, L. K. (2006). Implementation of political party gender quotas: Evidence from the German Länder 1990 - 2000. *Party Politics*, 12(2): 211-232.
- Epstein, Leon D. (1967). *Political Parties in Western Democracies*. New York: Praeger.
- Fox, R. L., and Lawless, J. L. (2010). If only they'd ask: Gender, recruitment, and political ambition. *The Journal of Politics*, 72(2): 310-326.
- \_\_\_\_\_. (2011). Gendered perceptions and political candidacies: A central barrier to women's equality in electoral politic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5(1): 59-73.
- Fox, R. L., and Oxley, Z. M. (2003). Gender stereotyping in state executive elections: Candidate selection and success. *Journal of Politics*, 65(3): 833-850.
- Katz, R. S. (2001). The problem of candidate selection and models of party democracy. *Party politics*, 7(3): 277-296.
- Langston, J. (2006). The changing party of the institutional revolution: Electoral competition and decentralized candidate selection. *Party Politics*, 12(3): 395-413.
- Lundell, K. (2004). Determinants of candidate selection: The degree of

- centraliz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Party Politics*, 10(1): 25-47.
- Rahat, G. (2007). Candidate selection: The choice before the choice. *Journal of Democracy*, 18(1): 157-170.

---

**조양민(趙孃旻):** 2017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연구원, 한나라당 사무처를 거쳐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2006년 정치와 선거에 관심은 있으나 공천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과 여성들을 위해 국내 첫 공천관련 서적인 『당선보다 어려운 공천 100% 성공백서』를 출간했다. 경기도의원 재직 시 “경기도 빈곤여성의 자활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경기도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연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경기도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축진에 관한 연구” 등을 공동연구하였다. 현재 사) 행동하는 여성연대 공동대표로 관심분야는 지방행정, 지방자치, 여성정책 등이다. [cosson@naver.com](mailto:cosson@naver.com)

**남재걸(南在傑):** 영국 Sheffield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행정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생활자치,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역혁신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정책의 협력적 로컬거버넌스 분석’(2015), ‘트리플 힐릭스 모형을 활용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집단 간 상호작용 분석’(2015) 등이 있다. [south68@daum.net](mailto:south68@daum.net)

